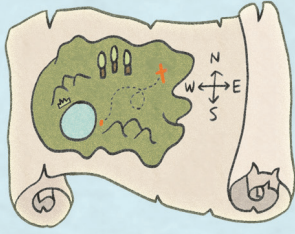


청년주보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마태 13,44

그림 | 노젼마

입당송 시편 68(67),6-7,36 참조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한마음으로 모인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백성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네.

제1독서 1열왕 3,5-6ㄱ,7-12

화답송 시편 119(118),57과 72,76-77,127-128,129-130(◎ 97ㄱ 참조)

- ◎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 주님은 저의 몹시오니, 당신 말씀 지키기로 약속하였나이다. 당신 입에서 나온 가르침, 수천 냥 금은보다 제게는 값지웁니다. ◎
-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자애를 베푸시어 저를 위로하소서. 당신 자비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제가 살리이다. 당신 가르침은 저의 즐거움이옵니다. ◎
- 저는 당신 계명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모든 규정을 바르게 따르며, 저는 온갖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
- 당신의 법 하도 놀라워, 제 영혼 그 법을 따르나이다. 당신 말씀 밝히시면 그 빛으로, 미련한 이들이 깨치나이다. ◎

제2독서 로마 8,28-30

복음환호송 마태 11,25 참조

-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복음 마태 13,44-52 <또는 13,44-46>

영성체송 시편 103(102),2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PAX TECUM

평화가 당신과 함께 : 대학교사목부 소식지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대학교사목부 안에는 서울대교구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이하 서가대연)가 있습니다. 서가대연의 홍보팀 갓포터즈에서 "PAX TECUM"을 창간하였습니다. PAX TECUM은 "평화가 당신과 함께"라는 뜻으로,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짧은 기도입니다. 서가대연의 소식, 동문 선배님 인터뷰, 단위대학교 가톨릭학생회 소개, 서가대연 일꾼의 이야기 등 재미있는 소식들을 다양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지는 대학교 사목부 신부님, 수녀님과 함께 갓포터즈 봉사자들의 손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기획부터 홍보까지 맡아서 제작하고 있는 갓포터즈의 이야기는 4면에서 이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을 원할까?



박민재 미카엘 신부님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대학교사목부

“우리는 정말 무엇을 원할까?” 삶에 있어서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가끔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사람들은 수많은 대답을 쏟아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선포된 복음을 통해서 앞선 질문과 화두에 대한 응답의 과정에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삶의 지향을 담아갈지 바라보게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밭에 숨겨진 보물’과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 말씀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모두 팔아서라도 얻고 싶은, 우리가 갈망하는 것의 최종 목적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물 비유와 진주 상인의 비유는 하늘나라를 비유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서로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 비유’는 농부가 밭을 갈다가 우연히 발견한 보물이고, ‘진주 상인의 비유’는 진주의 가치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비유를 통해 우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음(골로 2,3 참조)을 발견하고 온통 그분께 사로잡힌 이들과 하느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율법과 기도, 예배 등 이미 진주가 있으나 예수님을 만나 더할 나위 없는 인생의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분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보물과 진주를 발견한 이들의 형태는 다름지언정 주님을 발견했을 때, 두 경우 모두 ‘행복’과 ‘기쁨’이 이루어졌습니다. ‘행복’은 ‘우연히 얻은 기회’나 ‘행운’이 아닌,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과 같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Elysium)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은 하느님 나라의 은총에 상응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했던 발견 앞에서, ‘행복’과 ‘기쁨’에 싸인 농부와 진주 상인은 놓칠 수 없는 유일한 기회를 맞이했기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보물의 평가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는 희생, 포기, 단념까지 포함하는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주변의 것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종속시키고 그분을 첫 자리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파는 것은 그 행위를 마지못해 무슨 희생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은총을 첫 자리에 두어 우리 삶에 의미를 주는 어떤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쁨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는 본질적인 것이 결핍된 사람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것 즉 오로지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을 찾은 사람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치유된 병자의 기쁨, 용서받은 죄인의 기쁨, 자기 앞에 천국 문이 열린 도둑(우도)의 복음적 기쁨입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의 비유를 통해 바라볼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의 완성을 우물가의 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요한 4,5-14 참조)라는 복음을 선포 받고 자신의 목마름의 목적지가 주님임을 깨닫습니다. 그녀의 방향도, 두려움도, 인생의 목마름도 그분 안에서 끝이 납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고 싶은 우리 인생의 보물을 여인이 우리를 대신해 발견해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서두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을 원할까?” 바로 이 질문 안에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값진 진주’가 있습니다. 이것을 찾은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비 안에서 살아갑니다.
자비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비는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2020년 3월 18일 수요일 일반알현: ‘참행복’에 대한 교리 교육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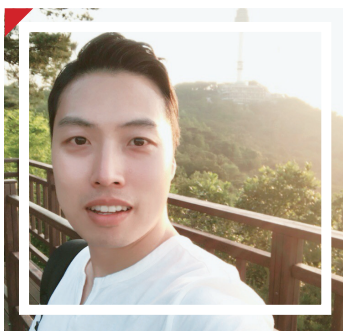


예로니모X주보편집부

번역부(예로니모)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을 참고하세요.



김정현 요셉 수사
예수회

금요일 밤의 홍대에서 만난 예수님

예수회의 모든 연학수사들은 평소 매주 한 차례 사람들을 만나서 사도직 활동을 하는, 일명 '주중 사도직'을 한다. 나의 경우, 지난여름 우연한 계기를 통해 청년들이 함께 모여 교황 권고문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를 읽고 기도한 바를 나누는 모임인 'CHRISTUS VIVIT'에 참여하게 되었다.

금요일 저녁 홍대거리의 풍경은 언제나 젊은이들로 가득하다.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 젊음이 쏟아내는 에너지를 담아내기에는 역시 홍대만한 곳이 없다. 그런데 이 사랑과 젊음의 기운이 가득한 홍대거리를 가로질러 청년문화공간JU를 찾아오는 청년들이 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찾아온 청년들의 갈망과 열정이 모임방을 가득 채운다. 나야말로 바깥에 나가서 젊음의 기운에 한껏 취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일까? 찾아오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나는 적잖이 놀라곤 했다. 하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목마름, 갈망을 듣고 공동체로 돌아오는 길에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곤 했다. "주님, 여기 이 청년들을 꼭 좀 기억해주시오. 오늘 이들의 발걸음이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독서모임을 통해서 내가 얻은 가장 큰 기쁨은 청년들과 친구가 되어 간다는 느낌이었다. 무릇 친구가 된다는 것은 '내가 이만큼 잘난 사람이니 나와 친구가 되어볼래?' 같은 마음은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나야말로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함께 해주겠니?' 같이 수줍은 고백에 가까울 것이다. 그런데 이 수줍은 고백이 이번 모임에서는 왠지 더욱 쑥스러웠고, 언제나 한 박자씩 늦기 일쑤였다. 예수회에서는 나를 '핵인싸(?)'지만, 교구 청소년국 청년부라는 새로운 곳에서는 '아싸(?)'일 수밖에 없던 나는 많은 부분에서 조심스러웠다. 그런 나에게 먼저 다가와 준 이들은 내가 친구가 되어달라고 고백하고 싶었던 바로 그 청년들이었다. 미안하게도, 그리고 고맙게도, 도무지 좁힐 수 없었던 한 박자의 간격을 메꿔어준 이들. 청년들은 내가 다가가기도 전에 먼저 겸손하게 친구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건네주었으며 사랑으로 다가와 주었다.

10개월이라는 긴 여정이 얼마 전에 끝났다. 지나고 보니 나는 언제나 내가 사랑하고 배려했던 것 이상으로 사랑받고 배려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부족하고 가벼운 나의 나눔에 고



개를 꼬덕이며 웃고 공감하던 청년들에게서 같은 모습으로 내게 고개를 꼬덕이시는 예수님을 본다.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청년사목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말할 때조차 너그럽게 들어주던 청년들에게서 내가 하는 어떤 이야기도 너그럽게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느낀다. 나의 부족함을 받아주고 나와 친구가 되어준 청년들을 통해 난 예수님 또한 나에게 그렇게 하고 계심을 체험한다.

모임을 시작하기 전 나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과 함께 걸었던 예수님처럼 청년들과 함께 걷고 싶었다. 청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한 사람의 수도자이자 청년으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싶었다. 이제 엠마오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청년들은 자신들이 느낀 예수님을 증거하러 각자 떠나갔다. 성 이냐시오의 '사랑은 말보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처럼 나 또한 말뿐만 아니라 나의 삶으로 그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기를 청해본다.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난 여정을 걸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 낙담하고 상처받아 부서진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셨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당신 사랑으로 가득 타오르게 해주셨다. 그러니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 바로 우리들의 엠마오, 홍대에서.



함께 보아요
www.inigo.kr

INI60

PAX TECUM 평화가 당신과 함께

갯포터즈를 소개합니다.

기획팀 : 소식지 인터뷰 및 코너 구성, 영상 기획



가톨릭대학교
소피아라
차아영 율리아



서울여자대학교
작은 자매
정희원 엘리사벳

디자인팀 : 홍보 물품, 소식지 제작, 영상 편집



성신여자대학교
마리아
김혜림 세레나



가천대학교
마티티아
김창희 프란치스코

Q. PAX TECUM 소식지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서울대교구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이하 서가대연)는 가톨릭 학생회가 있는 대학교들의 연합회입니다. 50~60년 전부터 가톨릭 학생회를 조직하고 초기에 활동하던 선배님들부터 현재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들까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서가대연 출신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가톨릭 학생회는 선배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지를 통해 서가대연 선배님들은 행복했던 추억을 회상하고 후배들은 대학 생활의 소중함은 물론 그 안에서 신앙을 살아가는 것의 가치를 알고 교류의 창이 되길 바라며 기획되었습니다.

Q. 만들어지는 과정을 소개해 주세요.

월간 회의를 통해서
주제 정하기 및 콘텐츠 구성
(평가 및 다음호 준비)

기획팀:
자료조사 및 글 작성

대학교사목부 신부님들과
수녀님의 컨퍼를 통해서
최종 작업 진행

디자인팀:
디자인 구성과 작업



Q. 어떤 마음을 가지고 PAX TECUM을 만들고 있나요?

김혜림 세레나 : 신앙 안에서 대학 생활을 하는 재학생들의 이야기와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며 생활하셨을 선배님들의 그때 그 시절 이야기, 또한 재학생과 졸업생이 현재를 기록하고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일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가톨릭학생회의 재학생들과 동문 선배님들을 만나며 그들의 이야기를 소식지에 담아 전달하는 이 활동이,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알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차아영 율리아 :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구성이 알찬 소식지를 만들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저 동문과 재학생의 탄탄한 신앙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보자는 생각만 강했습니다. 뭐든지 해보자는 생각과 달리 인터뷰도 처음이고 많은 사람이 보는 글을 만들고 다듬는 것도 모두 처음이라 어색한 부분도 있었지만 소식지를 통해 현재와 과거의 서가대연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PAX TECUM(소식지) 신청 방법

- 1) www.sfcs.or.kr 에 접속합니다.
 - 2) 회원가입을 합니다.
 - 3) [소식지 받기]에 "예"를 체크합니다.
 - 4) 주소와 이메일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ex. 회원가입이 이미 되어있다면 로그인 후 [정보수정]에서 3)번부터 진행해 주세요.



[편집부 이진영 아눈시앗, 최지원 플로라]

청소년국 청년부 직원 채용공고

모집인원 계약직 1명(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근무부서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업무내용 청년 사목에 관한 기획 및 운영 업무

우대사항 1) 청년 활동 유경험자 2) 영어 가능자 3) 영상편집 가능자

제출서류 각 1부씩 - 청년부 홈페이지(www.2030.or.kr) 공지 게시판 참고

접 수 2020년 8월 12일(수)까지 이메일 접수(mail@2030.or.kr)